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1.07.1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英, 테러 혐의로 체포된 청소년 70%가 극우주의
 - 영국 경찰은 올해 4월까지 테러 혐의로 체포된 18세 이하 청소년 21명 중 약 70%에 해당하는 15명이 극우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으며, 나머지 6명은 과격 이슬람주의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
 - * 극우테러로 검거된 24세 이하 혐의자들도 급증 ('15년 20%→ '20년 60%)
- 英, 백인우월주의조직 테러단체 규정
 - 7.12 英 「프리티 파텔」 내무장관은 美 극우 백인우월주의 집단인 '더 베이스'(The Base)*를 테러단체로 규정하고, 同 단체가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온라인에서 조직원으로 포섭 중이라고 발표
 - * '18년에 창설되어 파시즘 국가 건설을 표방, 직원에게 총기와 폭탄 지급 및 훈련

미주

- 뉴욕주, 美 최초로 총기 비상사태 선포
 - 뉴욕주는 총기 폭력 통제를 위해 △ 관련 기구 신설 △경찰-州政府間 해당 사건 정보 공유 △예방 프로그램에 1억3천870만 달러 재원 투입 등의 '총기 비상재난사태'를 미국 내 최초로 선포
 - * '21.1~6월 초까지 뉴욕市에서만 최소 687명이 총기 폭력으로 사상
- 아이티, 대통령 암살 배후로 아이티계 미국인 의사 체포
 - 7.12 아이티 경찰은 대통령 암살 배후의 핵심 인물로 아이티계 미국인 의사 「에마뉘엘 사농(63,男)」을 체포, 同人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고 테러를 계획했다고 진술
 - * CNN은 암살범 중 일부가 과거에 DEA(美 마약단속국)와 FBI에서 정보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보도

○ 美, 반체제 인사 납치 시도 혐의 이란 정보요원 기소

- 7.14 美 뉴욕 맨해튼 검찰은 자국 내에서 활동 중인 이란 반체제 인사 「마시 알리네저드」 (44세, 이란계 미국인)를 납치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려 한 혐의로 이란 정보요원 4명을 체포·기소

* 「마시 알리네자드」는 지난 '15년 미국에 입국후 이란 체제 비판 활동을 시작하였으며, '19년 미국 국적 취득

아 · 태평양

○ 아프가니스탄, 대테러 작전으로 탈레반 조직원 1,177명 사살

- 7.11 아프간 정부軍은 지난 7일 자국내 25개 지역에서 전개한 대테러작전으로 탈레반 조직원 1,177명을 사살하고, 점령되었던 5개 구역을 탈환했다고 발표

* 아프간 대변인은 “탈레반이 자국의 85%를 점령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”며 적극 부인

○ 인도, 알카에다 연계 테러 모의자 체포

- 7.12 인도 경찰은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카오리 지역에서 독립 기념일(8.15)에 인파가 많이 모이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계획한 알카에다 연계자 2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* 인도 경찰은 테러 모의자 은신처 급습을 통해 무기와 폭발물을 발견

중 동

○ 이집트 의회, 정부에 테러 연루 공무원 해임 권한 확대 부여

- 7.12 이집트 의회는 테러단체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들을 사전 징계 없이 해임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

* 同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테러범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용의자를 포함하며, 테러리스트에 추가된 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 가능

독일 뮌헨 쇼핑몰 총기난사 테러

- '16.7.22 독일 뮌헨 올림픽아 쇼핑몰 옆에 위치한 맥도날드 매장 부근에서 18세 이란계 독일인 「데이비드 알리 손볼리」가 무차별 총기 난사 테러를 자행, 청소년 포함 9명 사망·36명 부상
 - 「손볼리」는 사건 당일 17:00경 휴대하던 배낭에서 총기를 꺼내 시민들에게 난사 후 경찰이 추적하자 도주 중 현장 인근에서 자살
- 독일 헌법수호청(BfV)은 그간 「손볼리」가 반터키주의를 지지해 왔으며 극우정당 '독일을 위한 대안(AfD, Alternative für Deutschland)'을 추종했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범행이 극우테러일 가능성 시사
- 한편, 同 테러는 바이에른州 통근열차 안에서 17세 ISIS 추종 아프간 출신 난민이 도끼 공격을 자행한지 불과 4일만에 발생해 독일사회 內 테러에 대한 충격과 공포심 급격히 확산
- 사건 발생 직후, 「메르켈」 독일 총리는 「국가안보회의」를 소집하는 한편, 기자회견을 통해 희생자 가족들에게 “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다”며 애도 표명

< 독일을 위한 대안(AfD, Alternative für Deutschland) >

- (목표·결성) 독일 內 우익대중주의, 유럽회의주의, 반이슬람, 독일 내셔널리즘 정당으로 「베르트 루케」, 「알렉산더 골랜드」, 前 기독교민주연합(CDU) 회원들이 유로존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2013년 설립
 - * ('21.4月) AfD 內 전체 조직, 獨.연방헌법수호청(BfV)의 공식 감시대상으로 지정
- (연계세력) 페기다(PEGIDA), 독일을 위한 청소년 대안(JA)
- (주요활동) '13.9, 제18대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 유로존 탈퇴 공약으로 4.7% 득표
 - '18.10, Afd(JA) 단체장, 히틀러 두둔 및 폴란드 침공 관련 역사왜곡
 - '21.2, 쾰른 행정법원, BfV가 AfD를 극단주의 조직으로 감시·조사토록 허가

